



제목	Orthodox Christians in the Late Ottoman Empire: A Study of Communal Relations in Anatoli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12. 12. 20.
저자	Ayşe Ozil
출판도시	New York, London
페이지수	186
ISBN 또는 ISSN	978-0415682633

내용 요약

이 책은 오스만제국의 비무슬림 공동체의 삶이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에 문제제기한다. 저자는 오스만 기독교인들의 삶이 다양했으며 사회적 계층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오스만 역사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다. 오스만 역사연구의 새로운 경향에 의하면, 오스만제국의 비무슬림들은 그들이 소속된 종교적 공동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아나톨리아의 휘다웬기다르(Hüdavengidar) 지역의 그리스정교회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교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세계를 형성한 그리고 형성하지 않은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방행정(Local administration), 지방재정과 세금징수(Local Finances and Taxation), 법적 조직의 지위(Legal Corporate Status), 법과 정의(Law and Justice), 민족성(Nationality)이라는 이 책의 목차가 보여주듯이, 저자는 그리스정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작동한 복잡한 행정적, 경제적, 법적, 민족적 틀을 하나하나 고찰한다. 연구결과, 저자는 그리스정교회 기독교인들이 종교에 의해서만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존) 역사 기술의 혼란 전제와 달리, 그리스 민족성이라는 유대관계가 오스만제국의 정교회 기독교인들을 좀 더 그리스인 공동체답게 하거나 같은 종교를 믿는 신자라는 응집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